

지금까지 지내 온 것 460
Capeo-Red T. Sasaki, 1897 8.7.8.7.D. 박재훈, 1967

1. 지금 까 지 지 내 온 것 주 의 크 신 은 헤 라
2. 몸 도 밤 도 연 약 하 나 새 험 반 아 살 았 네
3. 주 님 다 시 뵈 올 날 이 날 로 날 로 다 가 와

한 이 없 는 주 의 사 랑 이 짝 이 무 말 하 라
물 붓 듯 이 부 으 시 는 주 의 은 혜 족 하 라
무 거 운 짐 주 께 맡 거 벅 을 날 도 멸 갓 네

자 나 께 나 주 의 손 이 항 상 살 펴 주 시 고
사 랑 없 는 거 리 에 나 험 한 산 길 헤 땀 때
나 를 위 해 에 비 하 신 고 향 집 에 돌 아 가

모 든 일 을 주 안 에 서 형 통 하 게 하 시 네
주 의 손 을 굳 게 잡 고 찬 송 하 며 가 리 라
아 버 지 의 품 안 에 서 영 원 도 록 살 리 라

개회예식

1. 시작송가

은혜로운 빛이여

(계) 주여, 우리 입을 열어 주소서
(응)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계) 하느님, 우리를 이끌어 구원 주소서
(응) 주여, 우리를 팔리도와 주소서
(계)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응)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은혜로운 빛 이여 하늘에 계시며 영원하신 성부의 찬란한 빛 이여
거룩하시고 복되 시 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여
해 저무는이에 우리는 황혼 빛을 바라 보 . 며 주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
나 이 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 이 - 여
주님은 언제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 시 오 . 니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의
성 자 여 온 세상으로 부 . 터 영광 받으 소 . 서

말씀의 전례

2. 오늘의 시편

53편

- 1 어리석은 자들, 제 속으로 이르기를 □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 말들 하는데
□ 그들은 모두 고약하고, 부패하고, 흉악한 자들, □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 없구나.
- 2 하느님, 하늘에서 세상 굽어보시며: 혹시나 슬기로운 사람이 있는지 □ 하느님 찾는 자 혹시 있는지, 두루 살피시지만
- 3 모두들 만길 찾아 벗어나서 썩은 일에 마음 모두어 □ 착한 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구나.
- 4 언제나 깨달으랴, 저 악한들: 떡 먹듯 나의 백성 집어 삼키고 □ 하느님은 부르지도 않는 자들이구나.
- 5 저자들은 겁에 질려 소스라치리라: 하느님께서 세워한 자들의 뼈를 흡수시고 □ 물리치시면 저들은 웃음거리가 되리라.
- 6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바라오니: 잡혀간 당신 백성을 하느님께서 데려 오실 때, □ 야곱은 즐겁고 이스라엘은 기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3. 성서독서

마태오(마태) 13:10-17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의 눈은 지금 보고 있으니 복이 있으며, 너희의 귀는 지금 듣고 있으니 복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4. 독서 후 송가

어린양 송가

1.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2.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 하 셧 고
3. 당신은 죽임을 당하 셧 으 며

4.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 부 . 터
5.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 셧 고
6. 그러므로 옥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되신 그리스도 께 - 서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만한 분 이 십 . 니 다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 재 합 . 니 다
당신의 피로 우리 죄 값을 치 . 루 어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 치 셧 습 니 다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 할 것 입 . 니 다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 으 소 . 서

1. 주님이신 우리 하느님, □ 당신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누리실 만한 분이십니다.
2. 당신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 만물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존재합니다.
3.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으며, □ 당신의 피로 우리 죄 값을 치루어,
4.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 사람들을 구해 내셔서 하느님께 바치셨습니다.
5.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였고, □ 사제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 위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6. 그러므로 옥좌에 앉으신 분과, 우리의 어린 양되신 그리스도께서, □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으소서.

5. 말씀 나눔

6. 대도

성찬의 전례

7. 평화의 인사

-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8. 봉헌



-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집전자는 성찬 준비가 되었으면 다음의 성찬기도를 드린다.

9. 성찬기도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오직 한 분이시며 참되신 하느님 성부여, 아버지께 언

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가 영원히 미치지 못할 빛 속에 계시으며, 생명의 샘이시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또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축복으로 채우시며, 경이로운 빛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무수한 천사들이 밤낮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빛나는 얼굴을 비오며 끊임없이 찬양하오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늘 아래 만물과 더불어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 지극한 영광과 권능 가운데 계신 거룩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지혜와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며, 하느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을 돌보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주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죽음의 그늘 아래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어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스스로 고난을 당하셨으나,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온 세상 피조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느님께로부터 영광 받으실 때가 이르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시던 중에, 빵을 들어 성부께 감사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예를 드리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부 오른편에 승천하심을 선포하나이다. 또한 영광 속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여 이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봉헌하나이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와 이 예를 위에 성령을 내리시고 □ 거룩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이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시고,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이며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기억하시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일치를 드러내며 평화를 보존하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와 모든 성인들과 함께 하늘의 유산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연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 아멘

10. 주의 기도

-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니다.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11. 성찬의 나눔

-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성찬의 초대

빵을 떼는 후에 주집전자는 다음 초대의 말을 한다.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 주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

성체와 보혈을 나눌 때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리스도의 성체 / □ 아멘
- 그리스도의 보혈 / □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와

S. Toollan

A E/A D/A E/A

1. 예수님 앞 에 나 와 떡과 포 도주 생 명의 양 식 우리

A E/A D/A A F#m7

함 께 나 눌 때 예수님 우리 불 러

D E A E/A A D A

새 나라 열 어 주 네 너 희 를 살 리 리 라 너 희 를 살 리 리

E A D Esus4 E A

라 마지막 그 날 에 너 희 를 살 리 리 라

2. 생명의 진리 이 떡, 죄를 사하는 약속의 이 잔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안에 살아가리 이 세상 바로 살리
3. 인자의 삶은 생명, 그의 흘린 피 생명의 약속
그 살 그 피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생명 우리의 오직 한 길
4. 주님은 부활이요 또한 세상의 생명이시니
이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사네 그 생명 영원하리
5. 예수님 우리 위해 여기 사람의 아들로 오사
영원토록 살아서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지켜주리

12. 영성체 후 기도

☐ 기도합니다.

☐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며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나이다. 비오니, 끊임없는 도우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파송 예식

13. 축복기도

- ☐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그대와 함께 하소서.

파송 성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355

44조
이호준, 1951
보통으로 ♩ = 92
이유진, 1967

1. 부름받 아 나선이몸 어 디든 지 가 오 리 다
2. 아 골골 짝 빈들에도 복 음 들 고 가 오 리 다
3. 존 귀 영 광 모든 권 세 주 님 홀 로 받 으 소 서

괴 로 우 나 즐 겨 우 나 주 만 따 라 가 오 리 니
소 돌 같 은 거 리 에 도 사 랑 안 고 찾 아 가 서
멀 시 천 대 십 자가 는 제 가 지 고 가 오 리 다

어 느 누 가 막 으 리 까 죽 음 인 들 막 으 리 까
종 의 몸 에 지 닌 것 도 아 깎 없 이 드 리 리 다
이 름 없 이 빛 도 없 이 감 사 하 며 섬 기 리 다

어 느 누 가 막 으 리 까 죽 음 인 들 막 으 리 까
종 의 몸 에 지 닌 것 도 아 깎 없 이 드 리 리 다
이 름 없 이 빛 도 없 이 감 사 하 며 섬 기 리 다 아 멘

14. 파 송

- ☐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롭시다.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